

ESG 경영 도입 · 양성평등 실현 최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기자간담회 갖고 하반기 주요 역점사업 공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반기 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추진할 분야별 사업은 △미래를 향하는 관점, ESG경영 △제11회 젠더문화축제 개최 △제50회 전북여성백일장 및 기념식 △경력단절예방 활성화 포럼 △제3회 여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다.

먼저, 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을 도입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ESG경영의 필수요건인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정기적인 감질 및 괴롭힘 조사, 직장 내 고충심의위원회 상시 운영, 감정 노동자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고객 만족을 위한 CS교육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사회적약자 생산품의 성과지표 확대를 책임있는 기관 역할을 도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제11회 젠더문화축제와 제50회 전북여성백일장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최대의 양성평등 축제 젠더문화축제는 '다름이 소통을 더한다'라는 주제로 지역 내 37개 기관·단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11번째 추진중이다.

또한, 50주년을 맞은 전북여성 백일장은 기념식과 기존 당선자의 홈페이지를 마련했다. 세번째로, 도내 여성들의 좋은 일자리 환경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반기 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3회 여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어 예비여성 창업자들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체를 창업 프로그램 및 정부지원정책, 전문 창업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 시행에 따른 새일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경력단절예방 활성화 포럼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위드코로나 환경에 따른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해 안전하고 고객중심적인 청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가치로 청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진단을 시행하고, 주요 시설물 정비

리스트를 작성해 시설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더불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자 정기적 청사 소독, 전 강의실 이리얼 칸막이 설치 및 소독제 비치, 영상강의실을 통한 비대면 교육 적극 활용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전정희 센터장은 "도내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음으로서 우리 기관이 내실 있는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적극 도입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063-254-383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명사와 함께 떠나는 남원 스킨여행'

남원시 관광협의회, 건축·풍류·오감여행 3가지 테마 실시

남원시 관광협의회(위원장 이장근)는 건축여행, 풍류여행, 오감여행이라는 3가지 테마에 맞춘 명사와 함께 떠나는 남원 스킨여행'을 3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 멋으로 빈 시간을 채워 남원에서만 채울 수 있는 만족감을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기존에 몰랐던 남원에 대한 지식을 저명한 명사가 관광객과 함께 다니며 더 많이 더 깊이 안내해 주는 이번 여행에 대해 지식에 대한 욕구충족은 물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광루트를 개척해 남원관광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명사 여행은 남원시 외에 거주하는 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남원시 관광협의회 홈페이지(063-633-5353)를 통해 신청, 참가비는 5만원이다.

/남원=김기두기자

극단 삼육오, 명품 고전 '유리동물원' 공연

극단 삼육오(대표 이미리)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미국 유명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의 대표 작품인 '유리동물원'은 '뉴욕 드라마 비평 서클 어워드' 최우수 미국 연극상 '시드니 하워드'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작품은 1930년대 미국 배경의 꿈과 이상을 가슴 깊이 품은 채 삭막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실 세계에 밀착하지 못하고 환상세계에 광적으로 연연하는 어머니 '미란다'와, 어렸을 때 병을 앓은 후 신체적 결함이 생기면서 주로 집 안에서 유리 동물을 수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딸 '로라', 그리고 창고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이상과 현실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볼' 세 식구의 병혹한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붕괴 돼 가는 과정을 그린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다.

이러한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세 인물에게

희망을 품은 손님 '짐'이 찾아오는데, 어느 순간 유리 동물이 부서져 버린다. 이 부서진 유리 동물은 관객들에게 '작품명 <유리동물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극단 삼육오의 이미지 연출은 "이번 명품 고전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극이나, 창작극 이외에 명품 고전이 주는 또 다른 진한 울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객 여러분의 공감과 기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연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극 '유리동물원'은 오는 9월 2일 19시 30분, 9월 3일 15시에 완주문화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공연으로, 1회당 196석이며 100%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예매는 완주문화예술 홈페이지(<https://culture.wanju.go.kr>)에서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극단 삼육오 기획 지원미(010-6893-308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국립민속국악원, 31일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지리산 소극장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 손님은 한국 캘리그라피의 개척자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현 작가가 출연해 '붓을 잡은 연기자'를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통 서예를 기반으로 현대 디자인을 접목시킨 캘리그라피를 시도한 이야기,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연기를 하며 붓글씨 퍼포먼스를 선보인 일화, 민요 아리랑과 같은 국악



이상현 작가

박다울 거문고 연주자

을 소재로 재즈 등 타 장르를 공연에 접목해 캘리그라피로 시각예술화 시켜 무대작업을 시

도한 후일담을 들려준다.

우리음악 즐기는 거문고 연주자 박다울이 출연해 기타와 거문고가 어우러진 연주를 선보인다.

거문고 연주자 박다울은 서울대 국악과 출신으로 최근 JTBC '슈퍼밴드 2'에 출연해 전통악기에 현대 음악을 접목한 자작곡과 과격적인 퍼포먼스로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현재 밴드 '카디'(KARD) 멤버로서 콘서트와 앨범을 준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며,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기자

국립전주박물관, 도자공예 '도자기 접시 만들기' 체험행사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9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오는 9월 3일 오후 2시와 4시 세미나실에서 도자공예 '도자기 접시 만들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회차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참가 신청은 28일~31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www.nju.museum.go.kr)에서 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다.

한편, 도자공예란 점토를 손으로 빚어 성형한 후 장식, 건조, 유약을 바르는 과정을 거쳐 가마에 높은 열을 가해 구워진 완성된 도자기 작품을 말한다.

/장은성기자

전주대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성료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서정화)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5주 간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온

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됐다.

또한 수강생을 위한 이벤트로 비대면 랜선 체험을 통해 강의마다 적극 참여한 수강생을 최대 5명 선정해 체험키트를 우편 발송해 자택에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체험으로는 석고

방향제 만들기 진행됐다.

한편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완주소방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 글쓰기 프로그램 '나의 삶, 나의 이야기'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K+연구단 홈페이지와 센터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제7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2년 9월 2일(금) 오후 6시~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